

꽃이 질 일이 걱정이다

아침을 열며

이승현
강진 백운동
원림 동주



한때는 자신에게, 또는 누군가에게 꽃 봉오리였을 노인들의 부음이 연이어졌다. 한 달 새에 다섯 분의 조문을 다녀왔다. 꽃 피는 계절에 생명이라는 꽃이 지는 것을 보는 것은 괴롭다. 다시는 같이 밥을 먹을 수도, 목소리를 들을 수도, 손자 손녀를 안아볼 수도 없는 영원한 작별이 내게도 기어코 올 것임을 예감하기 때문이다. 단명했다거나, 고생만 하다 돌아가셨다거나, 병치레로 힘든 노후를 보내다 임종했다는 고인의 초상집에서는 마음이 더욱 애잔하고 무겁다. 칙칙한 마음을 지우고 싶어 봄향기 머금은 셋노란 프리지아 꽃 한 다발을 사서 안고 왔지만 상가(喪家)의 기분은 두고두고 스멀거린다.

상가(喪家)에서는 '이제는 내 차례다', '우리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들을 한다. 죽는 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다. 노령인구가 급격히 늘면서 노인 임종이 부쩍 늘어난 요즘 죽음이라는 문제가 한 개인을 넘어 가족, 국가의 채무라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최근 노령인구가 많은 일본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플랜 75'라는 영화를 관심 있게 본 적이 있다. 어느 날 한 노인 요양원에서 충격적인 충격 살인 사건이 벌어진다. 범인은 노인들이 나라 재정을 축내고 그 피해를 청년들이 다 받는다는 메시지를 남기고 자살한다. 이후 노인을 표적으로 삼는 범죄 사건이 잇따라 일어난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 정부는 청년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75세 이상 노인의 죽음을 적극 지원하는 정책 '플랜 75'를 발표한다. 의료비와 사회보장 지출 등 노인을 부양하는 비용은 증가하지만, 그들이 경제에 기여하는 바는 없다는 인식하에 국가가 75세 이상의 노인의 안락사를 권장하고 안락사를 선택한 노인에게는 마지막 여행과 장례를 지원

하는 것이다. 안락사를 선택하게 되어서 행복하다는 노인들의 증언도 등장한다.

'플랜 75'는 국가가 75세가 넘는 노인에게 죽음을 권유한다는 설정을 통해 고령화 사회의 문제를 제기하고 존엄사 문제를 제기한다.

하야카 치에 감독이 '플랜 75'를 만들게 된 모티브는 2016년 20대 남성이 장애인 시설에 침입, 19명을 살해하고 26명에게 중상을 입힌 '가나가와현 장애인 시설 집단 살인 사건'이다. 이 남성은 해당 시설 근무자였으며 '장애인은 차라리 죽는 편이 가족에게 편하다'라는 혐오 발언을 일삼았다. 더 심한 것은 '중증 장애인들이 활동이 힘들면 보호자 동의를 얻어 안락사할 수 있는 세계를 만드는 게 목표'라는 내용의 자필 편지를 썼다는 것이다. 영화에서는 장애인에서 노인으로 바꿨지만 일본 사회에서 노인 문제, 노인 혐오 문제의 심각성을 고발한 것이다.

'플랜 75'를 선택한 노인들의 대다수는 혼자 사는 노인들이거나 경제력이 없는 노인들이다. 이들은 힘든 삶을 버틸 힘이 없기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다. 사회적 복지와 보상을 받아야 할 이들이지만 정부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주고 사회안전망을 견고히 하기보다는 이들을 죽음으로 인도한다. 영화는 단순히 노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 사회공동체에 대한 현실도 돌아보게 한다.

'플랜 75'의 이야기는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20%. 천만 명이 넘는 우리나라에도 닥친 현실이기도 하다. 나이 든 부모가 해외여행을 다니면 '왜 내게 물려줄 돈을 가지고 마음대로 쓰는지 모르겠다'라고 한다는 극단적인 우스갯소리도 들리고, 70세, 80세 국회의원 당선자에게 노직장을 축하하기보다는 '나이 먹어서 뭐 하러' 식으로 폄하하는 것이 세태다.

늘었다는 것 자체가 죄송한 일이 되고 쓸모없으므로 치부된다. 노인들이 많아지면서 죽음이라는 문제는 꼭 초상집이 아니더라도 동년배를 만나거나 어르신들을 만나면 일상적으로 나오는 주제라

낮설지도 두렵지도 않다. 하지만 자신, 가족이나 사회에 폐를 끼치지 않는 노후나 죽음은 쉽지 않다. 그래서 '늙으면 어서 죽어야지'라고 자조(自嘲)하는 것이다.

아프지 않게 건강하게 늙을 것, 타인을 힘들게 하거나 괴롭히지 않을 것, 너무 오래 살아서 가족들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는 등의 각오를 노후 설계명으로 지켜 보려 하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죽음의 종착역이 된 요양병원에서만은 죽기 싫다거나 나 스스로 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길 바라는 것도 대다수 노인의 바람이다.

이것은 '노후 준비'를 넘어 영원한 작별을 위한 마지막 단계이자 인생의 최종 계획인 '사후 준비'다. 내가 어디에 묻혀 영면할지, 자식들은 성묘라도 올지 걱정이고 수목장할지, 봉안당이나 매장할지도 미리 선택해야 한다. 선산이 있음에도 지방이나 도로에서 멀거나 높은 산은 피하겠다고 한다.

특히나 조상님 산소 별초와 이장 문제는 내 대(代)에서 매듭지어야 한다는 생각에 머리가 무겁다. 그런 염려 때문에 풍수사를 부르고 손 없는 날을 잡아 자신들의 선대 조상들의 산소를 파묘 하여서 한 곳에 모으거나 시설에 모시는 것이 요즘 노인 세대들의 뻘 수 없는 버킷리스트가 되었다. 이런 현상이 천만 관객을 모은 영화 '파묘'와 무관하지 않았을 것이다.

요즘 생계조차 힘겨운 노인들이 많다고 한다. 고물가 시대에 수입이 뻥한 노인들이 삶은 갈수록 팍팍하다. 운전기사나 건설 현장으로 별이를 나간 친구들도 있고 골프 모임에 발걸음을 끊는 친구도 늘어간다.

노인빈곤, 인권, 질환 치료, 디지털 서비스, 돌봄 전문가 양성 등 국가와 지자체, 공동체가 어떤 철학이나 정책, 적시성을 갖추어 노인 문제나 죽음의 문제를 풀어낼지 걱정이다.

팔십 육년 동안/이 한마디뿐/여러분 잘 있거나/부디 잘못 살지 말게나/어느 선승의 임종계(臨終偈)처럼 혼자서 초연히 임종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社說

진실 부정하는 '5·18 왜곡' 당당하게 맞서라

인력·예산 부족으로 대응 한계

예산부족으로 인터넷 상에 유행하는 광주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폄훼와 왜곡 등을 감시할 시스템이 멈췄다는 소식이다. 5·18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지 올해로 44주년. 진상규명이나 명예회복은커녕 인터넷이라는 익명성을 무기로 '폭동'부터 '북한군 개입설'까지 온갖 폄훼와 왜곡이 기승을 부리는 현실에서 안타까운 일이다. 광주 정신의 훼손도 가슴 아프다.

당장 광주시가 5·18 왜곡을 잡아내기 위해 투입하는 1년 예산은 4650만원에 불과하고 인원은 단 3명 뿐이라고 한다. 그나마 이 가운데 2명은 광주시청이 아닌 5·18기념재단 소속이다. 이들은 5·18 왜곡에 대한 모니터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상규명도 담당한다. 예산 역시 4650만원 중 2650만원은 오월길 안내인들의 인건비다. 나머지 2000만원으로 인터넷 상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져 나오는 5·18 왜곡에 대응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현실이다.

인터넷상에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허위사실은 하루에도 수백~수천 건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그 수법 또한 갈수록 치밀하고 교묘해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5·18기념재단이 주요 포털 5곳을 대상으로 2개월간 왜곡·폄훼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 한 결과 5·18을 왜곡하고 폄훼한 온라인 게시물이 2만7643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익명성을 부분적으로 제한하는 사이트가 이런 상황이니 주요 포털이 아닌 곳에서 은밀하게 유포되는 허위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을 뿐 엄청날 것으로 보인다.

5·18 민주화운동의 왜곡과 폄훼는 역사적 진실을 부정하는 범죄다. 광주시를 비롯한 관계 기관의 당당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한다. 한국 사회를 분열시키고 국제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왜곡과 폄훼를 '돈' 때문에 외면할 수는 없다. 정부의 책임도 크다.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고 역사적 진실을 보존할 수 있도록 예산과 인력을 지원해 왜곡된 정보의 확산을 주도적으로 막아야 한다. 국가폭력에 의한 피해자를 돕는 것은 정부가 책임져야 할 정부의 몫이다.

'교육기본권' 담긴 학생인권조례 지켜야

광주교육단체 폐지 반발

지난해 7월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을 지키기 위해 광주학생인권조례 폐지 요구가 나오고 있다. 이미 충남과 서울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됐고, '인권도시' 광주에서도 폐지 절차가 진행되면서 교육단체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광주교육시민연대·광주YMCA·참교육학부모회·광주청소년정책연대 등 25명의 참가자들은 지난 7일 광주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기본권을 흔드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각하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해 9월 21일 광주시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 주민 발의'가 성사됐다. 해당 내용에 이상이 없고 이의가 없다면 광주시의회 운영위원회는 1년 내로 폐지안을 수리 또는 각하해야 한다.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으로 교권추락의 원인을 찾던 중 학생인권조례가 문제로 제기되면서 '폐지' 여론이 일었다.

지역 교육단체들은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건 억측

이라는 주장이다. 6개 광역시 중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서울·광주는 교권 침해가 줄었지만,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대구와 인천·울산은 교권 침해가 늘었다는 걸 근거로 제시했다. 교육계에 불어닥친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란이 자칫 교사와 학생의 관계를 대립관계로 인식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교사와 학생은 상호 존중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 교육의 본질은 가르치고 키우는 것, 즉 올바른 성장을 돕는데 있다. 그만큼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공동체라는 걸 잊어서는 안된다. 결국 교권 추락을 이유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건 교육현장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행위나 다름없다.

교권과 학생인권을 해하는 게 교육의 주체인 교사와 학생만의 문제로 봐서도 안된다. 사교육 열풍으로 인한 공교육 붕괴, '내자식만 소중하다'고 여기는 학부모의 과도한 개입 등이 교육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요인이 아닌지 고민이 필요하다. 교권 보호와 학생 인권이 조화를 이루되, 어느 한쪽이 위축되지 않도록 세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말이다.

서석대



옛날 중국의 용흥사라는 절에 진존숙이라는 명승이 있었다. 어느 날 사찰에 낯선 스님이 찾아왔다. 진존숙은 그와 선문답을 하게 되었는데, 첫마디를 건네자마자 다짜고 짜 소리를 질렀다. 진존숙은 속으로 '도가 깊은 스님이신가'하고 다시 말을 건네니, 또다시 버럭 역정을 냈다. 진존숙이 그에게 말했다. "겉보기에는 용의 머리를 닮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뱀의 꼬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스님은 얼굴을 붉히며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용두사미(龍頭蛇尾)라며 그 스님을 비웃었다.

용두사미

송나라 불교 서적 벽암록에 실린 용두사미의 유래다. 용두사미는 비유적으로 시작은 화려하나 끝이 미약하다는 의미로, 장대한 계획이나 목표가 미미하고 보잘 것 없이 끝나는 상황을 나타낸다.

처음에는 큰 기대와 열정을 갖고 시작했지만 결국은 실망스러운 결과로 끝나는 경우에 '용두사미'라고 표현한다. 이러한 상황은 통상적으로 계획의 부재나 실행의 부족으로 인한 실패를 보여주며, 시작의 중요성보다는 지속적인 노력과 집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한다.

스포츠계에서도 '용두사미'란 표현이 흔히 쓰인다. 대표적인 사례가 축구 국가대표 주장 손흥민이 뛰고 있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의 토트넘 홋스퍼다. 토트넘은 올시즌 초반 신선한 돌풍을 일으키며 리그 선두에 올랐지

만 중반 이후부터 점점 힘이 빠지면서 막판 용두사미로 추락해가고 있다.

올시즌 유럽클럽대항전 출전 불발과 컵대회 조기 탈락으로 인해 무관이 확정된 데 이어 마지막 남은 목표포 다음 시즌 유럽챔피언스리그(UCL) 출전의 마지노선인 4위 진입도 현실적으로 어려워졌다. 세 경기를 남겨둔 5위 토트넘(승점 60)은 4위 에스턴빌라(승점 67)에 승점 7점 차로 뒤지고 있다. 에스턴빌라가 남은 2경기를 다 지고, 토트넘이 3경기에서 모두 승리할 경우 4위가 가능해지지만 자력 4위는 물 건너 갔다.

광주를 연고로 하는 프로축구 K리그1 광주FC도 토트넘과 비슷한 행보를 보이고 있어 '용두사미' 우려가 크다. 광주FC는 올시즌 초반 이정호 감독의 '광주식 공격 축구'로 2연승하며 선두에 올랐으나 이후 지독한 수비 불안과 결정력 부재로 6연패 늪에 빠지면서 꼴찌로 추락했다가 다시 2연승을 거두며 8위로 올라섰다.

6연패 기간 광주FC가 보여준 경기력은 나쁘지 않았지만 이정호 감독의 전술이 간파되면서 역습으로 무너지는 경향을 보였다. 최근 두 경기에서도 이정호 감독의 전술은 변하지 않았지만 골 결정력이 살아나며 2연승을 거둘 수 있었다. 광주FC가 앞으로 더 치러야 할 20여 경기에서 전술의 업그레이드로 상대팀의 파훼법을 무력화시켜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기를 기대해본다. **최동환 취재2 선임부장**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대표전화 (062)527-0015 기사제보 (062)510-0331	경영지원팀 (062)510-042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취재1부 (062)510-0380 취재2부 (062)510-0394 정치부 (062)510-0340	문화체육부 (062)510-0351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사진부 (062)510-0391	
www.jnilbo.com m.jnilbo.com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FAX (062)510-0436	광고문의 (062)512-0100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